

입학금 폐지 ‘눈 가리고 아웅?’ 개별대학 합의 없어 갈등 지속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돌연 2022년까지 4년제 사립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과의 합의가 끝났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4년제 사립대는 현재 받는 입학금 가운데 입학경비에 쓰이는 실 금액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4~5년에 걸쳐 감축하고, 실 금액 20%는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발표대로라면 우리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입학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지원 받고 입학금 91만 2천 원의 80%인 약 73만 원을 2022학년도까지 매년 16%씩 감축해야 한다. 매년 12만 원 가량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학교를 포함한 주요 사립대들은 사실상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2018학년도 신입생이 내야 할 입학금 감축 계획부터 감추소속이다.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재정예산처 이승

민 계장은 “사총협이 교육부와 합의를 한 것이지만, 일반 대학들은 교육부와 따로 합의를 작성한 바 없다”며 “사총협에 속해 있는 대학이라 할지라도 각 대학별로 교육부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학교는 입학금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의결기구를 거치는 내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폐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입학금의 20%만을 지원해준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이 계장은 “모든 대학이 입학경비로 입학금의 20%만 쓴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며 “우리대학 뿐만 아닌 모든 대학에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별로 80% 감축하는 건 맞다”며 “사립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반대하던 사총협 측을 어떻게 설득 했느냐는 질문에 “사립대에 대해서 일반 재

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겠다는 설득을 했으며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고, 공개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 지원 분을 제외한 입학금의 나머지 80%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라는 모호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미래정책원 권오병 원장은 입학금 폐지 논란에 대해 “현재로서 입학금의 80%에 대한 부담은 사립대학이 온전히 알아서 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며 “입학금 단계적 폐지가 문제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무 기관인 교육부가 올해 안에 실행하려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사립대 입학금 폐지 발표 이후 한양대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학생들의 힘으로 입학금 폐지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환영의 성명을 냈다. 사립대와 교육부 사이의 교토정리가 명확히 끝나지 않은 가운데, 당장 입학을 앞둔 2018학년도 신입생을 포함해 학생들에게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개관 7개월 차 선승관, 학생들은 “여기 뭐예요?”

이근한 기자 dlrmsgsk21@khu.ac.kr

【국제】선승관이 관리자 부재로 개관 7개월이 지나도록 제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선승관은 국제캠퍼스 SPACE21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개관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지하 헬스장과 1층 체육 경기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간들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미래정책원 전략기획팀 이현아 계장은 “모든 것은 선승관 관리자가 아직 인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체육 경기장에서 지난 10월 31일 ‘Career Festival’이 개최되는 등 국제캠 내 행사 공간의 역할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 경기장으로서의 역할은 미진한 실정이다. 체육대학 행정실 김동주 과장은 “체육대학 학생들이 선승관 1층 농구 경기장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 관리자가 정해지지 않아 경기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선승관 개관 이전부터 사용처가 명확히 정해진 지하 AT센터와 태권도장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헬스장은 아직 운용되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해 학생 불만이 많다. 박도병(스포츠의학 2014) 씨는 “현재 학교에 일반 학생을 위한 제대로 된 헬스장이 없다”며 “선승관에 드디어 헬스장이 생긴다고 들었지만 아직 이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정확한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일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은 체육대학에 위치한 헬스장밖에 없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시간이 운동부 훈련 시간으로 운용돼 실제로 일반 학생이 이용 가능한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선승관’이라는 정식 명칭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선승관 홍보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몇 차례의 메일 정도였다. 건물 내외부 안내판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선승관 입구와 로비에는

아직까지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태현(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4) 씨는 “새로 지어진 건물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 들어가 보았으나, 아무런 안내판이 없었다”며 “지금 취재하며 건물 이름을 알았다”고 말했다. 1층 화장실 또한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등 선승관의 현재 운용 실태를 보여주었다.

이현아 계장은 “인선의 지연은 단순히 선승관이라는 체육시설 건물만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뽑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관리자 부재에 대해 답했다. 이 계장은 “선승관 관리자는 기존에 분산돼 있던 국제캠 내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 시설로서의 역할 확대에 관한 논의를 맡을 것”이라며 “이는 더 나은 시설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기에 인선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선승관 관리를 위한 조직위원회(거버넌스)가 꾸려졌으며, 선승관 활용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정서영·임종환 교수 선정돼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지난달 15일, 우리학교 임종환(인문융합연구소) 교수, 정서영(나노의약생명과학) 교수가 약리학 및 독성학, 농업과학 분야에서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선정한 ‘2017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선정됐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900개 기관에서 발표한 과학계열 논문 13만 건을 평가해 농업과학, 면역학, 화학 등 21개의 분야에서 ‘논문 피인용 횟수가 많은 연구자(HCR)’를 선정하고 있다. HCR은 논문의 피인용 횟수 세계 상위 1%에 속하는 연구자 그룹으로, 세계적인 학술정보 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 옛 톰슨로이터)가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에 11년간(2005년 1월~2015년 12월) 등록된 논문 약 13만 건을 평가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약 3,300명 중 한국인은 임종환, 정서영 교수를 포함해 28명이다.

임종환 교수는 약 30년간 식품공학 및 식품 포장 분야 관련 연구를 진행해 생분해성 포장재·기능성 나노컴포지트(nanocomposites) 등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의 우수성과 영향력을 인정받아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창조대상, 2017 한국 식품과학회 학술대상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HCR에 선정돼 ‘논문의 피인용 횟수 상위 1%’의 지위를 유지했다. 임종환 교수는 이번 HCR 선정에 대해 “제가 연구한 분야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분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운이 좋았을 뿐,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임종환 교수가 연구하는 나노컴포지트 포장재는 생분해성 포장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등장했다. ‘생분해성’이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에 의해 오염물질이 분해될 수 있는 성질로, 이를 활용한 생고분자, 생분해성 포장재는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보다 잘 썩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다. 그러나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만든 만큼 물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임 교수는 생분해성 포장재에 나노기술을 접목시켜 물성을 강화해 단점을 감소시키고 자외선 차단, 항균성과 같은 기능성까지 갖춘 ‘나노컴포지트 포장재’를 연구한 것이다. 임 교수는 “포장재에 항균성을 넣으면 기존 방부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밖에 있으므로 직접 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에서 훨씬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나노컴포지트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나노기술의 접목으로 많은 부분 보완됐지만 아직은 플라스틱에 비해 약한 물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가공의 어려움 등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임종환 교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또한 개발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생분해성 포장재를 이용한 포장, 나노기술을 접목한 포장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실용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덧붙여 “또 이러한 연구를 같이 하고, 약 30년 동안 쌓아온 연구를 이어나갈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싶다”며 미소를 지었다.

서울캠퍼스 부총장인 정서영 교수는 의약품 제제화, 분석 및 품질평가 및 약물전달체계(Drug Delivery System, DDS)에 대해 연구를 지속해왔다. DDS란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표적 부위에만 발휘되도록 최소의 양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다. 정서영 교수는 “DDS는 꼭 약을 먹어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멀미할 때 귀 뒤에 붙이는 멀미약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말하며 “국민 파스 케토톨을 개발할 때도 내가 도움을 줬다”며 웃었다.

이번 HCR에 크게 기여한 논문은 암 표적 치료제에 관한 논문이다. 이를 통해 정서영 교수 연구팀은 ‘키토산’과 나노입자를 이용해 변형된 나노입자를 만들어 암세포에만 타격을 줌으로써 주변 정상세포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치료제를 연구했다. 정 교수는 “기존의 암치료제는 소위 말해 ‘용단폭격’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그런데 용단폭격을 하면 정상세포도 또한 없애지니 ‘크루즈 미사일’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 정 교수는 “암세포의 혈관은 일반 세포보다 우둘투둘한 비포장도로 같다. 이런 암세포만의 특성을 이용하여 암세포 혈관 세포막에만 침투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고 싶었다. 암 표적 치료제는 나노기술을 통해 암세포의 혈관으로 들어가 약을 분사시킬 수 있도록 한다”며 DDS와 나노기술 접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는 그동안 내가 겪었던 경험을 연구와 교육의 증진에 활용할 것”이라며 “좋은 제자를 많이 두는 것이 앞으로의 궁극적 목표이다”고 말했다.



목련회의 · 목련음악회
경희대학교 Magnolia 2017
일시: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장소: 평화의 전당
1부 목련회의 오후 6시 30분
2부 목련음악회 오후 8시

2017 경희의 한해를 돌아보고 새 희망을 공유하는 목련회의,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지는 선물같은 음악회 “경희대학교 Magnolia 2017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 박쥐의 서곡
- Zigeunerweisen Op.20 - Pablo de Sarasate (Vn. 앙고운)
- F. Lehár - Die Lustige Witwe (유쾌한 미망인) 中 Lippen Schweigen (입술은 침묵하고) (이아경 이기업, 김대현)
- Strauss - Die Fledermaus(박쥐) 中 Champagne Song(삼페인의 노래) (이아경, 협창 20명)
- 도나우 왈츠
- Auf der Jagd Polka Op. 373 - Johann Strauss II '사냥 폴카 - 요한 슈트라우스 2세'
- 라데초기행진곡
- K-POP 대중가수 공연
- 목련회 합창

2017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방법 및 강의내용 개선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2017. 12. 1.(금)~12. 28.(목)
- 대상: 서울·국제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대상강좌: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 성적열람 및 공시 기간: 2018. 1. 2.(화)~1. 4.(목)
-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성적조회 기간
 - 강의평가 실시 학생: 2017. 12. 15.(금)~12. 29.(금), (단, 12. 24.~12. 27. 제외)
 - ※ 성적인력이 완료된 강좌에 한함
 - 강의평가 미 실시 학생: 2018. 1. 2.(화)~1. 4.(목)
- 강의평가 실시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수업/성적/상담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할 강좌를 클릭
 - 화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명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자유의견)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단추 클릭(저장 후 수정 불가)
 - 강좌목록 화면에서 평가를 마친 과목이 [미실시]에서 [실시]로 변경된 것 확인
 - 실시한 과목의 평가내용을 다시 보고 싶은 경우에는 강좌를 클릭하여 조회
 - 목록에 있는 다른 강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강의평가 실시
 -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모든 강좌가 [실시]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화면 하단의 [로그아웃]을 클릭하여 강의평가 종료
 - 강의평가를 잘못 실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의 강의평가담당자에게 문의
 - ※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교무처 학사지원과